



‘스타 와인 메이커 조 와그너의 첫 피노 누아 와인’

벨레 그로스 테일러 레인 2011

Bello Gros Taylor Lane

지역	미국 > 캘리포니아 > 산타 바바라 카운티		
포도품종	피노 누아 100%		
알코올	13.6%	용량	750ml
시음 적정 온도	13~15℃		
테이스팅 노트	체리, 블랙 베리, 후추, 타바코, 약간의 흙향이 느껴진다. 입 안에서는 풍부한 과실향이 느껴지고, 적절한 산도와 함께 실크와 같은 부드러운 탄닌이 길게 여운을 남긴다. 30년 이상의 숙성 잠재력을 가진 와인이다.		
페어링 TIP	붉은 육류/ 단단한 치즈/ 훈제, 염장 음식/ 밀가루 음식(피자, 파스타 외)		



제품설명



테일러 레인은 조 와그너가 15살에 첫 시도한 벨레 그로스 싱글 빈야드이자 기념비적인 와인이다. 오크 배럴에서 24개월 이상 숙성 후 출시되며, 산화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오직 1.5L로만 생산된다.

수상내역



2014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93점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